



‘탱크’ 최경주

새 역사 쓰다

‘코리안 탱크’ 최경주(51)가 한국인 최초로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스 투어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최경주는 2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의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파72)에서 열린 PGA 챔피언스 투어 퓨어 인슈어런스 챔피언십(총상금 220만 달러)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로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합계 13언더파 203타로 공동 2위 선수들을 2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오른 최경주는 50세 이상 선수들이 출전하는 PGA 챔피언스 투어 무대에서 한국인 첫 우승의 주인공이 됐다. 우승 상금은 33만 달러(약 3억8000만원)다.

최경주는 2002년 5월 컴백 클래식에서 우승, 한국인 최초로

PGA 챔피언스 투어 퓨어 인슈어런스 챔피언십 우승 ... 시니어 대회 한국인 최초 우승 상금 약 3억8000만원 ... “10년 넘게 걸려 다시 우승,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

PGA 정규 투어 대회 챔피언에 오른 데 이어 시니어 무대에서도 한국인 첫 우승 기록을 남겨 한국 골프의 선구자다운 역할을 또 해냈다.

지난주 샌퍼드 인터내셔널에서 연장 접전 끝에 준우승한 아쉬움을 1주일 만에 우승 고지로 오르며 시원하게 털어냈다.

2012년 10월 자신이 호스트로 나선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CJ 인비테이셔널 이후 약 9년 만에 공식 대회에서 우승한 최경주는 30일 경기도 여주시에서 개막하는 KPGA 코리안 투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0억원)에 출전하기 위해 귀국한다.

전날 2라운드까지 2타 차 선두였던 최경주는 이날 5번부터 8번 홀까지 4연속 버디를 몰아치며 추격자들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14번 홀(파5)에서 이날 유일한 보기가 나왔지만 그런데도 2위와 격차가 3타로 비교적 여유가 있었을 만큼 편안한 우승이었다.

PGA 정규 투어 8승으로 아시아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최경주가 PGA 투어 주관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11년 5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이후 10년 4개월 만이다. 날짜로는 3788일 만이다.

최경주는 우승을 확정된 뒤 현지 TV 중계팀과 인터뷰에서 “10년도 넘게 걸려 다시 우승했는데 워낙 경쟁한 선수들이 함께 경쟁해 쉽지 않았다”며 “이 코스에서 여러 번 경기했지만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고, 저에게 환상적인 대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터커

KIA 7연전 ... 전상현 가세·터커 상승세

T 타이거즈 전망대

이의리 부상 복귀 기약 없어 전상현·다카하시에 기대감 공격 키는 터커·최형우·황대인

약재와 호재가 겹친 KIA 마운드가 7연전 일정을 맞는다.

KIA 타이거즈는 29일 NC 다이노스와의 더블헤더 포함 7연전을 앞두고 있다. 창원에서 NC를 상대하는 KIA는 안방으로 돌아와 키움 히어로즈, 한화 이글스를 상대하게 된다.

마운드에 약재와 호재가 겹쳤다.

29일 예정됐던 이의리의 복귀전이 부상으로 무산됐다. 손톱 부상으로 잠시 결연을 멈췄던 이의리는 지난 22일 계단에서 발목을 접질려 남은 시즌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호재도 있었다.

새 외국인 투수 보 다카하시가 지난 25일 SSG를 상대로 KBO 데뷔전에 나서 4이닝 3피안타 2볼넷 5탈삼진 무실점의 피칭을 선보였다. 2주간의 자가 격리를 거쳤고 8월 17일 마이너리그 등판 이후 한 달여만의 실전이었지만 구속, 구위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다리던 부상병의 귀환도 있었다.

어제 통증으로 아직 2021시즌을 개시하지 못한 전상현이 26일 1군 선수단에 합류했다. 24·25일 SSG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연투’라는 마지막

■ KBO 중간순위 (27일 현재)

순	팀명	경기	승	무	패	게임차
1	KT	116	67	5	44	0.0
2	삼성	121	64	8	49	4.0
3	LG	113	60	5	48	5.5
4	두산	114	57	5	52	9.0
5	키움	120	59	4	57	10.5
6	SSG	120	55	9	56	12.0
7	NC	114	53	4	57	13.5
8	롯데	118	53	4	61	15.5
9	KIA	113	44	6	63	21.0
10	한화	121	44	8	69	24.0

테스트를 통과한 만큼 윌리엄스 감독은 28일 엔트리 등록을 예고했다.

마운드에 눈길이 쏠리는 7연전에 ‘사이드암’ 선발진의 역할이 중요하다.

28일 임기영이 선발로 나와 한 주를 연다.

후반기 6경기에서 승 없이 4패만 기록했던 임기영은 16일 삼성전에서 7이닝 2실점으로 반전을 이뤘다. 이 경기를 통해 3달 만에 승리를 더한 임기영은 기세를 이어 22일 KT전에서도 7이닝 2실점(1자책점)의 호투를 펼치며 시즌 첫 연승에 성공했다.

흔들리던 밸런스가 잡히면서 제구는 물론 지구 구위도 살아났다. 작구에 힘이 실리면서 임기영의 공격적인 피칭이 빛을 발하고 있다.

윤준현도 선발진의 한 축으로 자리를 굳혔다.

11일 NC전에서 프로 첫 승을 기록했던 그는 15일 롯데전 구원승, 18일 LG전 선발승 등 3연승을 내달렸다.

선발과 볼펜을 오가며 우려를 샀던 윤준현은 5

일 휴식 뒤 지난 24일 두산전에서 7번째 선발 등판에 나섰다. 두산 타자들의 공세로 3실점하는 바람에 패전투수는 됐지만, 5이닝을 소화하면서 선발 역할을 해냈다.

기회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이민우, 한승혁, 김현수가 기회를 살려야 KIA의 승률도 올라간다.

또 터커의 상승세에 힘입은 중심타선이 초반 공격으로 마운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지난 주 승리가 기록된 3경기 중 2경기에서 터커가 결승타 주인공이 됐다.

터커는 22일 KT전에서 1-2로 뒤진 1회말 무사 만루서 좌측 2루타를 날리며 7득점의 백야닝을 이끌었고, 25일 SSG전에서는 0-0으로 맞선 4회말 1사 1·2루에서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로 2타점을 올리며 다시 또 결승타를 장식했다.

24일 두산전에서는 홈런도 기록하는 등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터커가 뒤늦게 역할을 하고 있다.

최형우는 26일 두 차례 득점권 상황에서 모두 적시타를 기록하는 등 지난 주 6타점을 책임지며 ‘해결사’ 역할을 해냈다.

황대인이 공격 극대화의 킷을 쥐고 있다. 황대인은 류지혁의 부상으로 꾸준하게 타석에 서고 있다. 최근 10경기에서 3개의 홈런을 기록하는 등 10타점은 올렸지만, 타율은 0.237에 그치고 있다.

상황에 맞는 타격으로 흐름을 이어가는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한편 김선빈은 새로운 한 주 1200안타에 도전한다. 김선빈이 앞으로 9개의 안타를 더하면 KBO 리그 76번째 1200안타 주인공이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3호골 ... 토트넘서 유일하게 ‘몸값’

팀은 아스널에 1-3 패배

오직 손흥민(29·토트넘)만 ‘몸값’을 하고 있다. 팀 내 최고 연봉자인 해리 케인(28·주급 30만 파운드)이 이번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개막 5경기째 ‘0골’에 머무는 가운데 ‘주급 20만 파운드’ 손흥민은 3골을 터트리며 팀내 득점 선두로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손흥민은 27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2022시즌 EPL 6라운드 아스널과 원정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0-3으로 끌려가던 후반 34분 만회 골을 넣었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EPL 3호골이었다.

하지만 토트넘은 전반에 내준 3골을 극복하지 못하고 1-3으로 패하면서 3연패에 빠졌다.

토트넘의 부진은 최악 수준이다.

개막 3연승으로 이번 시즌을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최근 3연패에 빠지면서 순위도 11위로 급강하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출발은 좋았다.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 개막전에서 손흥민의 결승골로 1-0으로 승리한 토트넘은 올버햄프턴과 2라운드에서 벨리 알리의 결승골을 앞세워 1-0으로 이기더니 왓퍼드와 3라운드에서도 손흥민의 결승골이 폭발하며 1-0 승리를 따냈다.

이로써 토트넘은 개막 3연승에 3경기 연속 클린시트(무실점)를 기록했다.

하지만 손흥민이 종아리 부상으로 빠진 크리스털 팰리스와 4라운드에서 0-3 참패를 당한 토트넘은 첼시와 5라운드에서 또다시 0-3으로 패하더니 이날 아스널과 6라운드에서도 1-3으로 대패했다.

최근 3경기 연속 3실점으로 수비라인이 붕괴한 토트넘은 개막 6경기에서 단 4골에 9실점이라는



손흥민

잠담한 성적표를 거뒀다.

토트넘이 따낸 3승 가운데 2승이 손흥민의 발끝에서 만들어졌고, 토트넘이 기록한 4골 가운데 3골 역시 손흥민의 뒀일 정도로 ‘손흥민 의존도’가 높다.

주급 30만 파운드의 케인이 ‘잠수 모드’를 탄 사이 주급 20만 파운드의 손흥민이 팀을 먹여 살리는 모양새다. /연합뉴스

한국 양궁 12년 만에 세계선수권 전 종목 석권

‘세계 최강’ 한국 리커브 양궁이 12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전 종목 석권의 위업을 이뤘다.

김우진(경주시청)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코스타주 양크턴에서 열린 대회 7일째 리커브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마르쿠스 다우메이다(브라질)를 7-3(29-26 29-28 27-30 28-28 29-27)으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따냈다.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도 장민희(인천대)가 케이지 코폴드(미국)를 6-0(29-27 28-27 29-26)으로 완파하고 우승했다.

앞서 김우진과 안산(광주여대)이 나선 혼성 단

체인(혼성전)과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 3개를 모두 가져온 한국 양궁은 남녀 개인전 금메달까지 수확, 이번 대회에 걸린 금메달 5개를 모두 휩쓸었다.

기대를 모았던 2020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의 세계선수권 3관왕은 불발됐다.

안산은 코폴드와의 준결승에서 2-6(28-29 28-29 28-27 24-28)으로 패한 뒤 3-4위 결정전에서 알레안드라 발렌시아(멕시코)를 6-4(26-28 29-29 30-29 28-28 30-29)로 돌려세워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김성한 전 KIA 감독, 10월 3일 챔피언서 시타

김성한 전 KIA타이거즈 감독이 시타자로 챔피언스 필드 타석에 선다.

KIA는 한화 이글스와의 홈경기가 열리는 10월 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제18회 추억의 총장 축제 흥호의 날’ 행사를 연다.

광주 지역 대표 레트로 도심 축제인 총장 축제는 11월 3일부터 7일까지 닷새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광주시 동구 일원에서 펼쳐지며 ‘어게인, 1983 타이거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축제 프로그램의 하나로 김성한 전 감독의 시타가 준비됐다.

김성한 전 감독은 특유의 ‘오리 궁둥이’ 타격으로 올드팬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날 시구는 임택 동구청장이 맡고, 총장 축제의 캐릭터인 ‘총장이’와 ‘금남이’도 행사에 함께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